



### ‘아쟁’ 우리의 소리에 빠지다

김선제 독주회, 11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김선제 아쟁 독주회가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정악, 산조, 풍류, 창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함령지곡’, ‘한일십제 박종선류 아쟁 산조’, ‘경기 대풍류’ 등을 들려준다. 피날레곡은 김씨가 직접 작곡한 ‘아쟁과 거문고 2중주를 위한 프롤로그-푸널 II’로 진도 뒷김굿에서 모티브를 따온 곡이다. 연주 뿐 아니라 작곡과 편곡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씨는 전남대 국악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수석단원으로 활동중이다. 이왕재·전미향·유소희·김광숙·김선임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문의 010-9636-7528. /김미은기자 mekim@

### 24년만의 재창단 ‘광주시립극단’ 개소 현판식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박윤모) 개소식과 현판식이 7일 오전10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날 개소식에서 박윤모 예술감독은 “광주시민들과 소통하고 교감을 나누며 사랑받는 시립극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수준 높은 작품들을 무대에 올려 지역 문화계를 발전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체된지 24년만에 재창단된 광주시립극단은 오는 7월 창단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문화재단, 22일까지 해외 레지던스 사업 공개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22일까지 ‘해외 레지던스 & 페스티벌 진출 및 교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역 문화예술인을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해외의 아티스트 레지던스나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경쟁력 향상 및 창의적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된 단체의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개인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서 참가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22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7432.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국 미술계 파워 인사들 고흥 남포미술관 찾는다

국내 미술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한적한 시골 미술관을 찾는다. 7일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에 따르면 전국 국·공·사립미술관장 70여명은 오는 3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는 ‘2012 전국미술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고흥 남포미술관을 방문한다. 전국미술관장 회의는 전국 150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참석이 예상되는 미술계 인사로는 이명옥 사립미술관협회장(사비나 미술관장)을 비롯해 정형민 국립현대미술관장·노준의 토탈미술관장·유상욱 코리아나미술관장(코리아나화장품 회장)·박미정 환기미술관장 등이 꼽히고 있다.

부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김우중 전 대구그림 회장의 부인인 아트선재센터 정희자 관장 등도 참석을 검토중이다.

사립미술관협회는 남포미술관(관장 광형수)의 경우 열악한 재정 형편과 문화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매년 5~6차례의 기획 전시와 대형 공연을 꾸준히 추진하는가 하면,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의 문화 갈증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상지로 선택했다.

남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나무를 팔아 전시회를 여는가 하면, 매년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 체험을 진행해온 점, ‘지붕없는 미술관’으로 불릴 정도의 아름다운 해안 풍광, 여수세계박람회와 나로우주센터 등 볼거리가 적지 않은 것도 반영됐다. 당장, 남포미술관측은 부족한 예산 문제 등 국내 미술계 파워 인사들을 맞을 준비로 분주하다.

광형수 관장은 “국내 미술계 유명 관장들이 대거 찾아오는 만큼 고흥의 멋진 풍광을 소개하면서 자연과 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지방의 작은 문화 공간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미술관장 70여명, 31일~6월1일 경영전략회의

### 지방서는 처음... “자연 문화공간 중요성 알릴 것”

여기 국·공·사립미술관장들이 미술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가 대표 미술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회의로,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하는 미술관의 경영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전국 미술관장들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잘 나가’ 유명 미술관이 대부분 포함되는데, 이들 미술관 수장들이 참석하는 회의인 만큼 미술계를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대거 고흥을 찾을

특히 정형민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은 국내 미술계의 ‘여성 파워’를 상징하는 인물로, 정 관장은 지난 1월 현대미술관(1969년) 개관 이래 처음으로 여성 관장에 임명됐다. 김 관장도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국내 3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으로 ‘가장 가고 싶은 미술관’에 꼽히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수장이다. 이외의 2006년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았던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이나 이성순 소마미술관 명예관장,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고흥 남포미술관 전경. 폐교를 활용한 미술관은 한적한 시골 정취와 비취색 바다에 접점이 놓인 섬 등의 풍광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 32년전... 상처받은 자를 위한 위로

‘웃기지마라&울리지마라’전  
10~23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이하 작 ‘Pretty dictator series’

29만원 이라고 쓰인 수표를 들고 서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맨 몸을 드러낸 권투선수로 묘사된 리비아 전 독재자 카다피, 터미네이터를 연상하는 듯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5·18 광주민중항쟁 32주년을 맞아 ‘추모 열기’가 달아오르는 광주에서 ‘과감한’ 전시가 열린다.

다경아트컴퍼니가 10일부터 23일까지 빛고을 시민문화관 1층에서 여는 ‘웃기지마라 & 울리지마라’전은 32년 전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광주시민들을 위로하는 작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예술가의 사회적 발언은 기본적 책무’라고 주장하는 이하씨의 팸아트 작품 23점이 출품된다.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을 통해 역사의 기억들을 되새기게 하는 작품으로, ‘웃기지마라’에서는 권력을 휘두르며 거짓 진실을 강요하는 이들을 비판하고 ‘울리지마라’에서는 압박받으며 인류애를 실천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드러낸다.

이씨는 지난해 뉴욕에서 연 ‘귀여

운 독재자’(pretty dictators) 개인전을 통해 오사마 빈 라덴, 카다피·김정일 등의 독재자를 귀엽게 그려내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해 개인전에서 선보였던 작품에 최근에 작업한 것까지 포함해 선을 보인다.

람보가 된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 문익환 목사, 김근배 전 민주당 상임고문, 이용산 수지 여사 등이 그려진 작품도 나온다.

문의 010-6678-6697.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호남예술제 피아노 초등부 입상자 (1, 2, 5, 6학년)

〈심사위원〉 구재향(호신대 교수) 조선미(광주여대교수) 박효정(한일장신대교수) 이훈진(대불대 교수) 이성은(전남과학대교수)	3 강기원(광주화강2) 7 박가영(일곡2) 9 홍서현(동림2) 19 황서운(정암2) 30 김혜술(연제2) 33 황현지(불로2) 35 김채민(광양마동2) 43 김서연(광주농성2) 44 정수현(광주계림2) 47 이유럽(노화중앙2) 48 박시운(만호2)	44 박하나(목포영산6) 46 김재은(목포영산5) 48 윤지현(동림6) 50 배연정(무선6) 53 이우진(불로6) 63 이용광(신암6) ▲ 동상 3 이로운(진남6) 8 강민승(살레시오6) 19 조시은(광주용산5) 23 박은서(문산6) 27 최다연(태봉6) 31 차지우(광주효덕6) 35 정승연(전주서일5) 36 이수현(큰별5) 37 박규영(금구6) 45 박수진(동림6) 52 장지운(신암5)
◇ 초등부 1,2학년 ▲ 금상 15김래현(풍암2) 39김하숨(수문2) 50김가연(광양제철남2) ▲ 은상 6 오유민(진남2) 16 김현진(신암2) 21 유보영(광주삼육2) 25 김노경(송정2) 32 김수지(고실2) 42 박소영(광주교육대 광주부설2)	◇ 초등부 5,6학년 ▲ 최고상 28 이도현(당진계성5) ▲ 금상 14 방진서(큰별5) 24 이명훈(목포항도5) 29 홍수빈(목포신흥6) 30 김시운(불로5) 39 고은후(불로5) ▲ 은상 22 이신희(별교5)	▲ 동상 *최고상 수상자는 컬러 인물사진 2매를 5월 14일까지 본사 문화사업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since 1982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 봉사 OFF SALE** [www.kjhr.com](http://www.kjhr.com)

기간: 2012년 3월 15일~8월 31일  
독일보청기 정품만 사용합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